



생각이 자라는 아이들... ‘융합적 사고력’ 빛난 작품들



2019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공모전

해를 거듭할수록 ‘스크랩 노련미’ 돋보여
수상작 오는 26~27일 NIE 전시회서 선보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최하고 (주)한라일보사가 주관한 ‘2019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스크랩 공모전’에서 김도연(제주중앙여고 1) 학생이 개인부분, 정하늘·홍리우(애월중 1) 학생이 팀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NIE 공모전’은 지난 2009년부터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JDC와 함께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활동 사례를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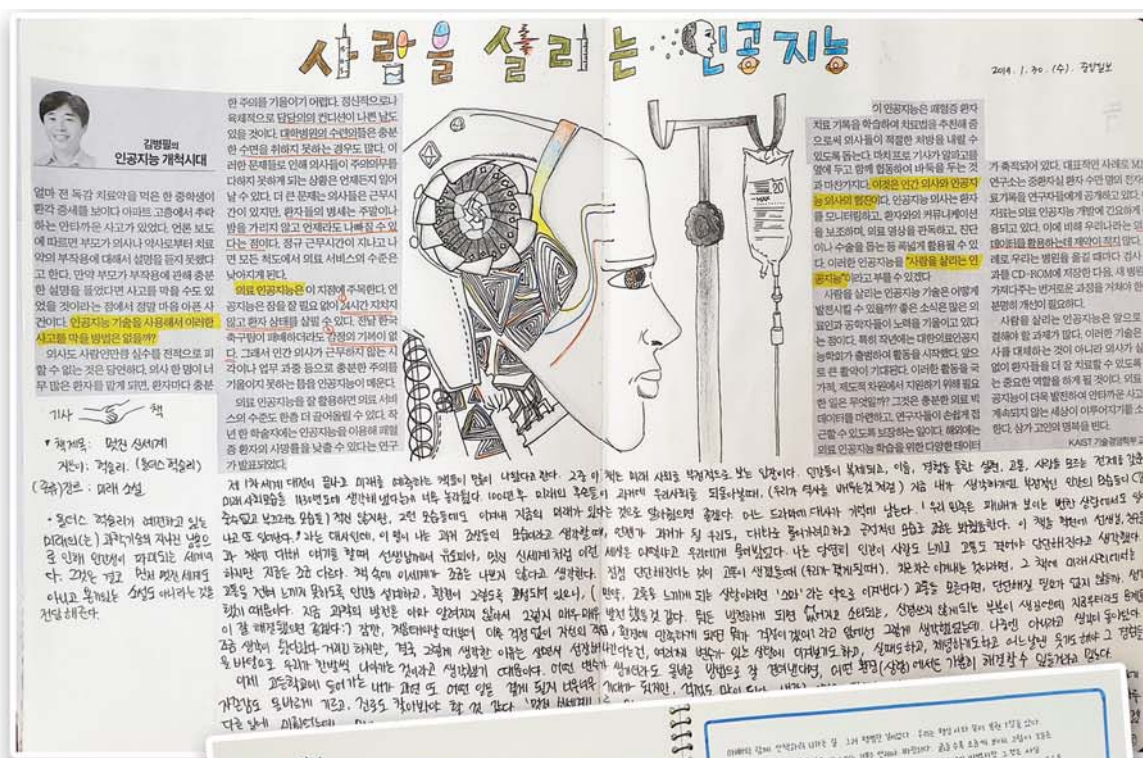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도 ‘스크랩 노련미’가 돋보인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전반적으로 작품들이 고른 향상을 보인 것도 주목할 만 하지만 ‘NIE 입문자’의 작품도 늘며 지속적인 한라일보의 NIE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더불어 학교에서 이뤄진 NIE 수업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한 가지 주제로 NIE 스크랩을 한 작품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공모전 출품작들의 ‘융합적 사고력’이 돋보였다. 참가자들은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내용을 요약한 뒤 자신의 느낌을 써가는 레퍼토리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기사, 시, 일기, 만화,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글쓰기 갈래로 새롭게 표현하며 가치를 창조해내는 ‘융합적 사고력’을 오롯이 작품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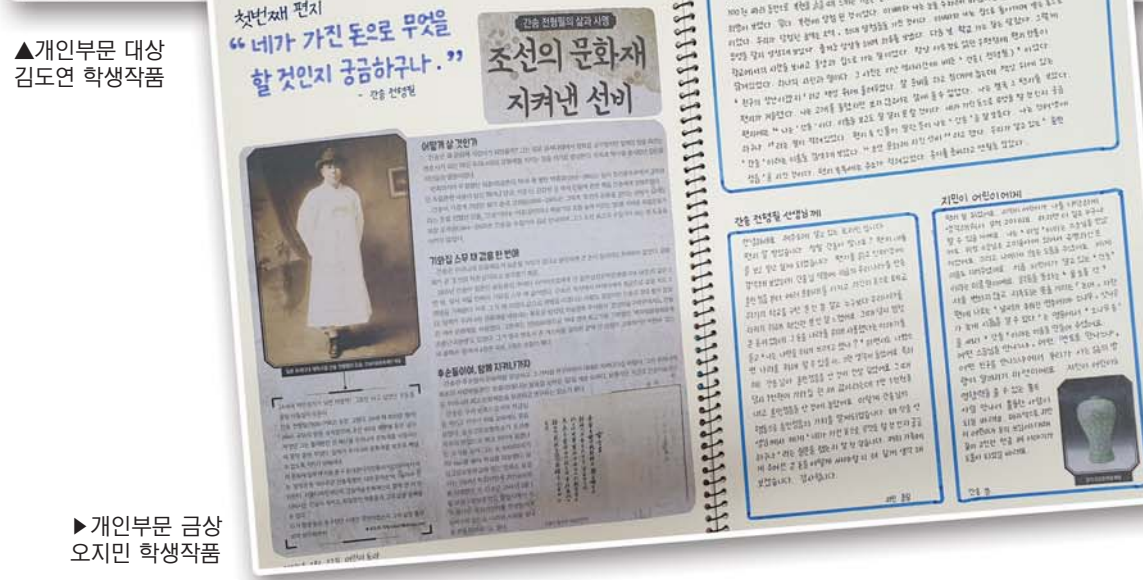
한편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리는 ‘2019 JDC와 함께 제11회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전시회’에 전시된다. 공모전 시상식은 2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전시회 개막식에서 함께 진행된다.

#심사평

▷오시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즐거워 진화한다. NIE가 진화하고 있다. 신문 기사를 읽고 재치와 유머로 수다를 떨 듯 자신의 생각을 만화에 곁들여 써 내려간 작품을 만났다. 보는 내내 즐거웠다. 아이들이 이제는 신문기사의 다양한 분야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련 지식을 여러 방법으로 확장시키고 책과 영화를 접목시켜 사고를 넓혀 나가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 김도연 학생작품



▶개인부문 금상 오지민 학생작품



▲팀부문 대상 정하늘·홍리우 학생작품

이런 작품들이 시선을 끌었다. 환경, 노인, 북한, 역사, AI, 인물, 미래, 과학, 보건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하나의 주제로 모아 미래의 하고 싶은 일과 연결시킨 작품들에서는 즐거움이 묻어난다.

다양한 생각들이 엉켜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과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이다. 신문을 통해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글쓰기, 토론 등에 머리를 맞댄 NIE 동아리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김형진 대정여고 교사=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 신문을 읽고 이해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관련한 정보들을 더 찾아 조사해나가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폭을 넓혀 나간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중고등부 개인 공강종 중에는 과학, 노인, 역사 등 자신이 관심을 둔 주제를 중심으로 신문의 정보들을 파악하고 전문지식, 통계자료, 관련도서, 유튜브 자료 등을 활용하며 다양한 개념들을 추가 조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간 학생들이 돋보였다.

또한 중고등부 팀 공모작에서는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반대 신문식 토론 진행, 마케팅광고 포스트 제작, 북한관련 기사 의견을 댓글 방식으로 교환 작성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활동을 해 나간 점이 인상 깊었다.

▷박진희 제주NIE학회 부회장=이번 공모전의 특징은 표현방식이 무척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NIE는 어렵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만큼, 누구라도 쉽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을 많이 평가했다. 정형화된 정답보다 다양한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 자신의 생각이 잘 들어가고 있는 작품을 우선 순위로 뒀다.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한 학생수도 수준도 나아가고 있어 기쁜 마음이다.

▷오형세 JDC 홍보협력실 부장=주제와 내용의 선택과 구성에 있어 학생들의 엄청난 열정과 노력이 녹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팀부문 평가에서는 참여구성원들이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을 위한 자율성, 소통의 기법, 협업에 따른 공동인식을 고려해 심사에 입했다. NIE의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부가적으로 고려했다. 개인부문 평가에서는 독창적 주제 선택과 선택에 따른 내용 구성, 글의 창의성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인식과 의지를 표현한 점을 고려했다.

▷현영중 한라일보 편집부장=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 신문기사를 활용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들의 생각을 갈무리하는 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의 작품은 깔끔하게 편집돼 있어 이해에도 훨씬 도움이 됐다. 특히 단체 출품작의 경우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도 조금씩 아니면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는 등 NIE 교육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공동 기획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승호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자연녹지, 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빌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애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전)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한경면 저지리 전 (11,000㎡) 계획관리지역
---	--	---

 동부공인중개사 신제주토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 북 ☎ 010-2800-4595 064-747-5115	※ 이도동 칼호텔동측 대 192㎡ 주택 80㎡ 3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 674㎡/매가 50㎡ 5억 • 해안동 상리인(아)복장) 맹지 28,842㎡ 9억 •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 아라동기차촌 1090㎡ 9.24억 • 하례5.16도로동측과수원 8856㎡ 11억원	※ 연동명주마을 신설2차선도로 점 168㎡ 3억 • 애월수신봉저수지인(아)복장) 대 620㎡ 3.1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2차선전 대지조성 481㎡ 6.59억원 • 함림상명 조림식주택 60㎡/대 430㎡ 1.5억 • 판포 바다경과 구 자연녹지 3028㎡ 6.49억원	※ 애월남읍자연취락지구 대지 410㎡ 1.65억 • 중문고인구 자연녹지 638㎡ 3.39억 • 조천해안도로인(아)복장) 대지 502㎡ 3.39억 • 우도하수구동해수욕장인(아)복장) 10,323㎡ 12.59억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9억 •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99억
--	--	--	--

시민장 의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중형, 소형, 차량완비 / 한상 주, 야 대기
 장례일제 (매장·화장·이묘) 방 문 상 답 환 영

사무실 : ☎ 064) 732-5200, 762-5316
 H · P : 010-3696-3172, 010-8661-6560

정방목포

에이주유소

비석거리

일호광장

시민장 의사

도봉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6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청

광양로터리

중앙로터리

문예회관

도봉로터리

터미널로터리

제주시